

†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 님들~

세상의 시선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자캐오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자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겠다는 열린 마음이 그를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이번 복음을 접하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초대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시는 기쁨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서 언제나 그곳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1,3항)

오늘 하루도 그분께 다가가고자하는 간절한 노력과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녹)연중 제31주일]:

10월 30일 복음 말씀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1-10

그때에 1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2 마침 거기에 자캐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3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4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5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6 자캐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7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8 그러나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9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10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디오 링크입니다 <http://tinyurl.com/jkw8pjax>)

10월 넷째주 공지 드립니다

<지난행사>

안나회 요야킴회 - 식사 봉사 (10/23)

지난 주일 성당의 어르신들 단체인 안나회와 요야킴회 식사에 하모니가 서빙, 뒷정리, 설거지 봉사를 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청년들의 참여와 봉사에 많이 흐뭇해 하시고 많은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수고해 주신 김현경, 문지영, 권창모, 김정호, 전진영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나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번주 공지는 지난 주일(10/23) 시몬 신부님께서 강론시 들려주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노래를 공유하며 시작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선택받은 소중한 우리들,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랑 전하며, 감사속에 기쁘하루 되세요. <https://youtu.be/gFIDuhjYkcY>

[가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만남의 성경모임 - 10/29 토요일

조 마모로 수녀님과 함께 루카복음 말씀을 나누는 만남의 성경모임이 다가오는 토요일(10/29) 성당 소망방에서 있습니다. 은총 가득한 나눔의 이 시간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RSVP 부탁)

일시: 10/29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장소: 소망방 (사제관 건너방)

전례 봉사 - 10/30 주일

다가오는 10/30일 주일 교중미사에 하모니와 뜨락회가 전례 봉사를 합니다. 뜨락회에서 예물을, 하모니에서 해설과 독서 봉사 합니다. 해설 1명, 독서 2명 (남,녀)에 관심 있는 분들, **회장단에게 내일 목요일(10/27) 정오까지 알려주세요.** 보다 적극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처음인 분들은 교육을 해 드리니 염려말고 적극 참여해 주세요.

컵청소 - 10/30 주일

반별로 돌아가며 봉사하는 컵청소 당번 차례(청년들)가 다가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다 같이 영차, 삼시간에 깨끗이 치웁시다!

하모니 후원금 - 이기하 비오 형제님

지난 주일날 이기하 비오 형제님께서 하모니를 위해 \$200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활동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시며 격려의 말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일날 감사 카드를 준비합니다. 하모니의 마음을 정성스레 담을 수 있도록 감사의 한마디 꼭 적어 주세요.

기도

- 선종하신 **이영재 루카 형제의 아버지 이현진 프란시스 형제님**과 루카 형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선종하신 **주임 신부님의 어머니 김중운 세실리아 자매님**과 최 신부님,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하느님의 곁으로 먼저가신 고인들께서 주님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으시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사랑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성스레 기도 드립니다.

여러 이유로 힘든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를 하느님께서 항상 돌봐주시고 지켜 주시길 기도 드립니다.

아프고 힘든분들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함께 나누고 싶은 기쁜 소식/희망의 소식도 알려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가톨릭 성서모임

매주 금요일로 예정된 청년 마르코복음 모임은 신부님께서 한국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연기됩니다. 일정이 확인 되는대로 모임 일시를 따로 공지 드리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명축일 -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28: 시몬, 타데오 성인

하모니 멤버의 영명축일은 아니지만.... ^^

최 바르톨로메오 주임 신부님 부재중 특히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채홍락 시몬 신부님**과, 우리 청년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담당 (보좌)신부님이셨던 **김선류 타데오 신부님**의 영명 축일이 같은날 10/28일 입니다.

신부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기도중에 기억해 주세요~

<리마인더>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최근 선종하신 김중운 세실리아 자매님과 이현진 프란시스 형제님을 기도속에 특별히 기억해 주세요.**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2016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김정호 이냐시오 [510-299-2297](tel:510-299-2297)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

